

BIC 에필로그

저녁 7시에 전화가 울렸고,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Frega 씨. 레조칼라브리아 Sheraton 호텔의 Valeria입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총지배인님을 대신해 전화드렸는데요, 선생님과 관련된 일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쯤 들러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려고요.”

“물론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걱정이 많은 편이라서요. 무슨 일인지 귀띔이라도 해 주시면 준비를 하고 갈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실은 몇 주 전에 선생님의 프랑스인 동료분이 남기고 간 빚에 관한 일이에요. 그분이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 선생님께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총지배인님께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프랑스인 동료?

도대체 그게 누구야?

모든 가능성 중에 떠오르는 이름은 단 하나, Chanel뿐이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자신을 나의 동료라고 부르고, 내 것도 아닌 문제를 나에게 떠넘겼을까?

다음 날 나는 호텔에 도착했다.

총지배인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내 이름으로 그곳에 배달된 편지 한 통을 곧바로 건넸다.

그들은 우체국이 아니었지만, 나의 아버지와 내가 모회사 Gillette를 대표해 50년 넘게 그들의 고객이었기 때문에 친절하게도 편지를 받아 주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총지배인은 내가 동료의 빚을 갚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나는 얼마냐고 물었다.

“말씀드리기가 거의 민망합니다만,” 그가 말했다. “그 부인께서 봉투를 열기 전에 반드시 빚을 갚으셔야 한다고 단호하게 고집하셨습니다.”

“얼마를 내야 합니까?”

“Frega 씨: 미국 달러 1달러입니다.”

그 프랑스 여자, 이런 망할 년 같으니.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밖으로 나가 편지를 열어 읽었다.

내 사랑, 이제 1달러를 낸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겠죠.

키스를 담아,

당신의 Chanel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차가 없었고, 버스는 결코 타지 않았다.

큰 외국 수도들에서의 삶이 나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에, 나는 거의 3킬로미터를 걸어 집으로 향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딸이 문을 열고 외쳤다:

“서프라이즈!!!!”

Ferdinando